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칠레

Republic of Chile

2023년 2월 23일 | 선임조사역(G2) 김은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756천 km ² 	인구 19.9백만 명 (2022 ^e)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GDP 3,109억 달러 (2022 ^e) 	1인당GDP 15,604달러 (2022 ^e) 	통화단위 Peso(Ps) 	환율(US기준) 873.3 (2022년 평균) 

- 남미 대륙 서부 남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칠레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와 인접하고 있음. 환태평양 조산대에 접하여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잦은 편임.
- 구리(세계 1위), 리튬(1위), 레늄(1위), 몰리브덴(4위)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함. 특히 구리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리의 생산 및 수출이 GDP의 약 10% 및 총수출의 50%를 점유하고 있음.
- 정부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의 FDI 유치국임.
-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OECD 회원국으로,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을 결성하여 중남미 신경제블록을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 6. 12 수교 (북한과는 1972.6.1 수교, 1973.9.19 단교 후 1992.9.25 재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78), 사증면제협정(80), 항공협정(80), 경제기술협력협정(83), 문화협정(84), 투자증진 및보호협정(99), 이중과세방지협약(03), 자유무역협정(04), 원자력평화이용협력협정(06), 운전 면허상호인정협정(08), 취업관광프로그램협정('16), 사회보장협정('17), 방위산업군수지원협정('17), 국방협력 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0	2021	2022	주요품목
수 출	866,536	1,574,182	1,510,533	섬유,전자·전기제품,자동차,기계류
수 입	3,543,256	4,859,460	6,813,184	동, 목재, 수산물, 유기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2년 9월 말 누계, 총투자기준) 98건, 941,155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3.9	0.9	-6.1	11.7	2.0
소비자물가상승률	2.3	2.3	3.0	4.5	11.6
재정수지/GDP	-1.5	-2.7	-7.1	-7.5	0.9

자료: IMF, EIU

2022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 정부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대 경제성장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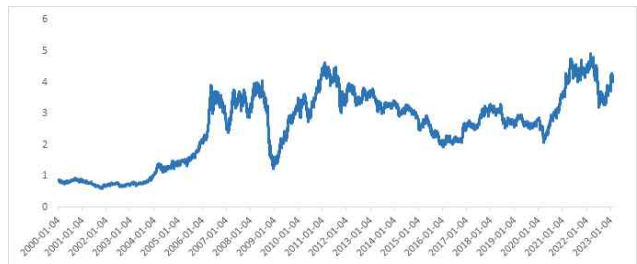
- 칠레 경제는 광물(구리, 리튬 등)과 농수산물(과일, 생선 등)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 특히 광업은 GDP의 14.6%(21년), 전체 수출의 54.9%(13~22년, Central Bank of Chile) 및 FDI의 23.6%(12~21년, CBC)를 차지하여,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경제성장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성을 보임.

- 2010~13년 칠레 경제는 주요 광산 및 전력 프로젝트 투자가 확대되고 자동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수요가 증가하여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을 견인하면서 연평균 5.3%의 건실한 성장을 시현함.

* 연도별 경제성장률: ('10)5.8% → ('11)6.1% → ('12)5.3% → ('13)4.0%

- 2014년 이후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2%대로 둔화되었고, 2018년 시장 친화적인 피네라 2기 정부 출범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7%로 일시 반등하였으나, 2019년에는 수도 산티아고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다시 둔화되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그림 1] 구리 국제가격 추이(2000.1월~2023.2월, 미 달러/톤) 인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국가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경제활동 둔화 등으로 -6.1%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원자재 수출 활성화, 거시효과 등으로 11.7%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회복하였음.



- 2022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 코로나 기간 중 3차례나 계속된 연금 조기인출 허용 등에 따른 경기 과열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22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14.1%, CBC)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새 정부가 집권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신헌법 제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2.0%의 경제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칠레 경제는 고인플레이션, 정책 불확실성 및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 등으로 다시 한 번 마이너스 성장(-1.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IMF)*.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제1위 수출상대국) 경제의 회복 정도, 정부의 세금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시행, 신헌법을 둘러싼 정치 갈등 양상, 광업·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의 지속 여부 등이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EIU).

* 2023년 칠레 성장률 전망 : (OECD) -0.5%, (EIU) -1.0%, (Fitch Solutions) -0.8%, (IHS Markit) -1.2%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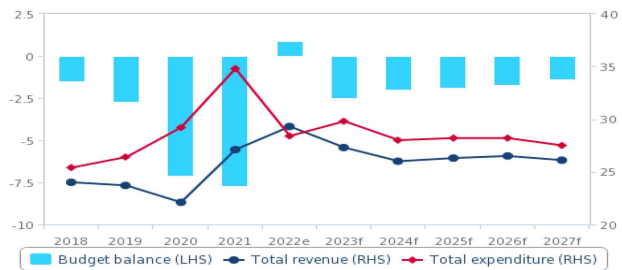
중기적으로 소폭의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 20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관세·법인세 등 세수 감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한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2020년 -7.1%, 2021년 -7.5%에 달하였음.

- 칠레 정부는 2020년 중 취약계층 앞 현금 지급, 보건·의료체계 강화, 코로나 피해 기업 앞 유동성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340억 달러, GDP의 13%에 상당)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50%, 2021~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추이에 따라 나머지 50%를 유동적으로 배정하였음(IMF).

- 2022년에는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세수 증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관련 세입 증가 및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책 규모 축소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GDP의 0.9%, IMF).

[그림 2] 칠레 재정수지 추이(Fitch Solutions)



- 한편, 정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0년 7월, 12월 및 2021년 4월 총 3회에 걸쳐 연금의 10%를 인출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재정부담 가중, 연금 고갈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IMF에 따르면 2020년 두 번에 걸친 연금 중도인출에 각각 10백만 명, 7백만 명이 인출을 신청하였고 연금 납입자의 25%인 약 3백만 명이 연금을 소진하였으며, 총 363억 달러가 인출된 것으로 추정됨(IMF, Bloomberg).

- 2023년에는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아래에서 인프라 투자(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시행), 사회안전망 투자 및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의해 재정수지는 GDP의 -1.2%로 다시 적자 전환될 전망이며(IMF), 중기적으로도 소폭의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의 중기 전망(IMF) : ('24^f) -0.9% → ('25^f) -0.4% → ('26^f) -0.2%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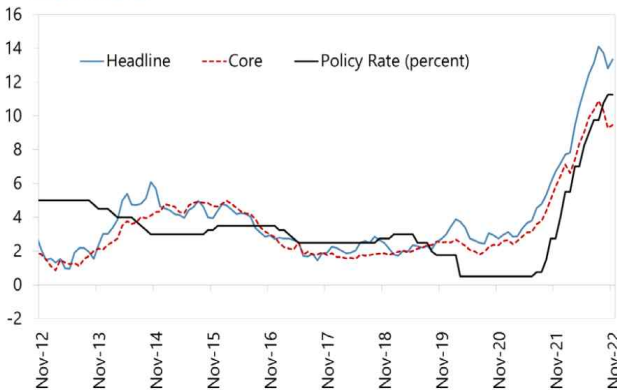
중앙은행,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대폭 인상

- 칠레 중앙은행은 3±1%의 소비자물가 목표수준 설정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년 간 목표수준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2016~20년 평균 2.7%)을 유지해왔음.
- 칠레 중앙은행은 2019년 구리 가격 약세와 4분기에 발생한 소요사태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3.0%에서 1.75%로 낮춘 바 있음. 한편,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5%로 일시에 하향 조정하였으나, 2021년 들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에만 4차례에 걸쳐 3.5%p를 인상하여 4.0%로 상향 조정하였음.
-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2022년 8월 물가상승률이 14.1%에 달하는 등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칠레 중앙은행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차례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여 11.25%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칠레 인플레이션 및 기준금리 추이(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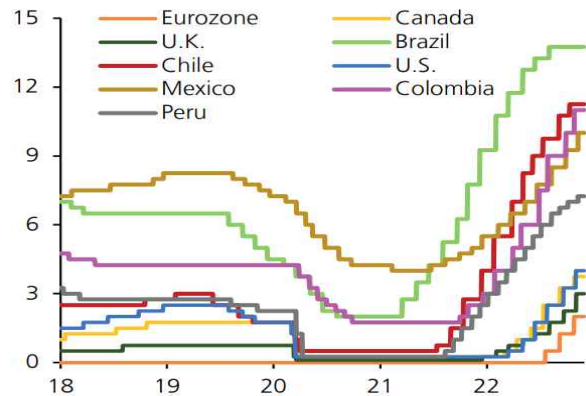
Chile: Inflation and Monetary Policy Rate

(In percent, yoy)



[그림 4]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22.12월 기준, CBC)

(percentage points)



- 2023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및 직전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각각 12.3%, 0.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말부터 하향 추세로 돌아선 물가상승률의 하락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EIU는 4월부터 칠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도,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음.

구분	2022.8월	2022.9월	2022.10월	2022.11월	2022.12월	2023.1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14.1	13.7	12.8	13.3	12.8	12.3
직전월 대비 물가상승률(%)	1.2	0.9	0.5	1.0	0.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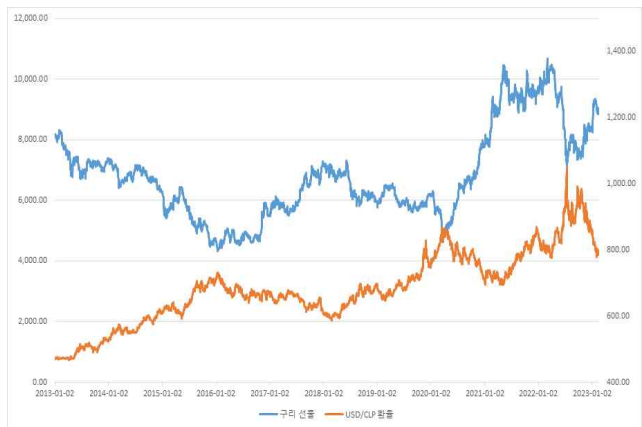
* 출처: CBC

국내경제

페소화, 최근 다양한 글로벌경기 변수로 변동성이 대폭 상승

- 변동환율제를 운용 중인 칠레는 투명한 거시경제 정책,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으로 미 달러화 대비 페소화 환율이 2015년 이후 수년 간 달러 당 650페소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음. 다만, 2019년 하반기 소요사태로 외국인 투자심리가 냉각되면서 2019년 말 환율은 전년 말 대비 7.0% 상승한 745 페소를 기록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상고하저의 환율 흐름을 보였음.
- 2021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불확실성 증대로 연말 환율이 866페소까지 상승하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전년 하반기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보리치 당선인의 급진적 정책에 대한 우려 일부 해소 등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미국 연준이 2022년 6월과 7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75bp 인상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구리 가격도 폭락하면서 환율이 사상 최대치인 1,049페소까지 급등하며 연말까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
- 이에 칠레 중앙은행은 페소화의 추가적인 평가절하를 막기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하였음. 한편, IMF는 칠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에 239.3억 달러 규모의 탄력대출자금(Flexible Credit Line, 미인출, 2년 만기)을 승인한 바 있으며, 2022년 8월에는 칠레의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해 동일 만기의 185억 달러 규모 FCL을 재승인하였음.
- 2023년에는 신헌법 개정 관련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나, 중국의 코로나19 조치 완화 등에 따른 견조한 구리 수요 등으로 환율이 작년 연말 수준(867페소)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됨(EIU).

[그림 5] 구리 가격, 페소화 환율 추이(investing.com)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경 상 수 지	-13,265	-14,505	-4,284	-20,307	-24,066
경상수지/GDP	-4.5	-5.2	-1.7	-6.4	-7.8
상 품 수 지	4,409	3,016	18,976	10,528	2,790
상 품 수 출	74,838	68,792	74,086	94,677	97,191
상 품 수 입	70,430	65,776	55,110	84,148	94,401
외 환 보 유 액	38,733	39,480	37,800	47,128	35,248
총 외 채	185,356	199,519	210,759	239,000	220,435
총외채잔액/GDP	62.8	71.7	83.5	75.5	70.9
D.S.R.	30.6	35.2	33.8	26.6	48.5

자료: IMF, EIU

2022년 경상수지는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적자 폭 확대

- 칠레 경제는 구리, 금 등 광물자원 수출이 총수출의 약 50%에 달하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로 원자재 국제가격에 따라 상품수지 규모가 좌우되고 있으며, 광산 개발 관련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과실송금 등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경상수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20년에는 전년도 하반기의 전국적 소요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상품수출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상품수입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1.7% 수준까지 감소하였음.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 등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상품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대비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였음. 반면, 해외 과실송금액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적자 폭이 확대되었음.
-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이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더욱 확대(-7.8%)되었으나, 2023년에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에 따른 구리 가격 상승과 폐소화 환율 안정화 등에 따라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EIU, GDP의 -4.1% 전망).

구분(억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o
상 품 수 지	44.1	30.2	189.8	105.3	27.9
서 비 스 수 지	-73.4	-80.9	-73.6	-119.8	-112.2
본 원 소 득 수 지	-121.6	-104.1	-159.3	-184.2	-152.7
이 전 소 득 수 지	18.3	9.7	0.3	-4.3	-3.7

자료: IMF, EIU

대외거래

수출은 광물 및 농수산 자원, 수입은 연료 및 공산품 위주

- 칠레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등 순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구리, 광석, 생선, 과일 등 국제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받는 광물과 농수산물임. 한편, 주요 수입상대국은 중국, 미국, 브라질 순으로 한국은 10위임. 광물연료, 기계류, 자동차, 전자기기, 플라스틱 등 에너지 및 공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은 2006년 칠레와의 FTA 발효 이후 2007년부터 2위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15년 미국을 제치고 칠레의 1위 수입 대상국 자리를 차지

칠레의 상품 수출입 현황(2022.1~10월 기준)

5대 수출상대국		5대 수출물품		5대 수입상대국		5대 수입물품	
국가명	비중(%)	품목(HS코드)	비중(%)	국가명	비중(%)	품목(HS코드)	비중(%)
중국	38.3	광, 슬랙, 회(26)	34.3	중국	29.5	광물연료(27)	15.2
미국	16.3	동과 그 제품(74)	25.8	미국	17.3	보일러 기계 및 부품(84)	12.4
일본	7.7	과일, 견과류(08)	7.2	브라질	8.8	전자기계(85)	11.1
한국	5.1	어류, 갑각류 등(03)	6.5	아르헨티나	5.7	철도 및 차량(87)	10.5
브라질	5.0	펄프(47)	3.0	독일	3.4	플라스틱(39)	4.1

자료 : GTA

외채상환능력

외환보유액은 FDI 유입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준 유지

- 칠레는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지속적인 유입*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 규모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1년에는 외국인투자 확대와 글로벌 본드 발행(2021년 7월 17.5억 유로 및 37.5억 달러, 9월 21억 달러) 등 해외차입 증가로 외환보유액 규모가 전년 대비 24.7% 증가한 471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중장기 차입금의 대규모 상환**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한 352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 연도별 FDI 유입액(UNCTAD, 억 달러) : 125('16) → 41('17) → 103('18) → 152('19) → 96('20) → 127('21)

** 연도별 중장기 차입의 원리금 상환 추이(EIU, 억 달러) : 305('19) → 283('20) → 290('21) → 551('22) → 402('22)

- 이는 월평균수입액의 3.0개월분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며, 칠레의 우수한 신용등급에 따른 저리의 외채조달 능력, 2022년 8월 IMF로부터 확보한 185억 달러 상당의 탄력대출자금(Flexible Credit Line, 미인출 상태) 등을 고려하면 단기 유동성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외채상환능력

국채 발행으로 외채규모는 증가 추세를 지속할 전망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83.5%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75.4%와 70.9%를 기록하여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팬데믹 이전의 60%대보다는 높아진 상황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0% 내외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총외채잔액 중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10% 내외 수준으로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 2022년의 경우 일시적인 대규모 중장기 차입의 원리금 상환에 기인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e	2022 ^f
단기외채잔액/총외채잔액(%)	9.6	9.8	7.5	8.7	11.4	11.6
D.S.R.(%)	30.6	35.2	33.8	26.6	48.5	34.2
총외채잔액/총수출(%)	197.1	225.7	249.0	217.1	191.6	179.0

자료: IMF, EIU

구조적취약성

광물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

- 칠레 경제는 구리를 중심으로 하는 광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원자재 국제가격 및 글로벌 경기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한편,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은 부족하고 기계, 전자, 화학 등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이들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2021년 이후 팬데믹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였던 구리 가격은 2022년 중반 미국 등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조정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등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한편, 폐소화 환율은 구리 가격과 대체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바, 작년 여름 7월 최고치(1,049페소/달러)를 갱신했으나 최근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칠레의 광업 부문은 용수 부족, 광석 품질 저하, 지역사회 간 분쟁, 환경영향평가 취득 난항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칠레 정부는 광물 국제가격 하락과 외부환경에 따른 영향을 분산하기 위해 광종 개발의 다각화를 추진 중임(한국광물자원공사, 「칠레 광물 투자가이드」).

성장잠재력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로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칠레는 구리, 리튬, 몰리브덴, 아이오딘, 레늄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구리, 리튬, 레늄 등의 세계 1위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부국임(한국광물자원공사, 「칠레 광물 투자가이드」). 광업은 그 특성 상 전력, 용수, 제조, 운송 등 연관 산업에 대한 수요 창출효과로 인해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의하면 칠레의 구리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전 세계 매장량의 22.7%(2억 톤) 및 생산량의 26.7%(560만 톤, 2021)로 세계 1위이며, 리튬 또한 매장량(41.8%)과 생산량(26%)에서 세계 1위임.
- 리튬은 최근 전기 자동차 배터리의 주원료로 중요성이 급속히 부각되고 있으며,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 가량이 칠레-볼리비아-아르헨티나(리튬 삼각지대) 3개국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재 칠레 정부는 리튬을 양도 불가능한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의 진출 및 개발에 제한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 중임.
- 염호나 암염층에 매장된 리튬은 1979년 이후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한 개발 또는 '리튬 생산 특별 계약'을 통한 개발만이 가능하고, 추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할당량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성장잠재력

농작물 재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지형학적 이점 보유

- 칠레는 높은 일조량, 북반구 선진국과의 계절적 차이 등의 이점을 활용하여 포도, 체리, 사과, 베리, 호두, 육류, 연어 등 광범위한 농축수산물을 주로 북반구에 수출하고 있음. 농축수산업은 지속적으로 무역흑자를 보이는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로, 2019년 농축수산업 무역수지는 2014년 이래 최고치인 약 1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이하 '2021년 칠레 농축수산업 정보(코트라)' 참조).
- EMIS(Emerging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칠레는 2019년 생산량 기준 연어 세계 2위, 체리 6위, 포도 9위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까지 축산업 및 수산·양식업의 시장규모가 각각 연 4.6% 및 6.5%의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Fitch Solutions).
- 칠레는 남북으로 4,300km에 이르는 긴 영토의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함.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을 자랑하며, 남쪽에는 바람이 풍부하고 화산 지형이 밀집되어 있어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이하 '2021년 칠레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코트라)' 참조).
- 칠레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에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 2050(Energia 2050)'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탈탄소화 계획을 수립·시행 중임.
- 칠레 신재생에너지협회(ACERA)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칠레에는 태양열, 태양광, 수력, 지열, 풍력,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이뤄지고 있음. 태양광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풍력(37.5%), 바이오매스(4.2%), 소수력(6.0%) 순임.
- 기존 신재생에너지원 외에 그린 수소 개발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2020년 11월 칠레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25GW 규모의 전력을 투입하여 1.5달러/kg 가격의 그린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그린 수소 국가전략(Estrategia Nacional Hidrogeno Verde)'을 발표함.

정책성과

중남미 제3위의 FDI 유치국

- 칠레는 정치 안정성, 튼튼한 거시경제 및 건전한 재정정책과 일관성 있는 시장개방 정책 등으로 중남미에서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처로 인식되어 왔으며,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제3위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국임.*
 - * 브라질 504억 달러, 멕시코 316억 달러, 칠레 127억 달러 (2021년 기준)
칠레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125('16) → 41('17) → 103('18) → 152('19) → 96('20) → 127('21)
- 칠레 정부는 1970년대 이후 외국인투자 자유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와 시장 완전 개방 등의 정책을 단행한 결과 광업, 전력, 통신, 금융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확대됨.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보고서의 기업환경순위(Business Environment Ranking)에 따르면 칠레는 2020년 조사대상국 190개 국가 중 세계 59위(중남미 1위)이며,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9년 조사대상국 141개국 중 33위(중남미 1위)임.
 - * 기업환경 중남미 주요국 순위: 멕시코 60위, 푸에르토리코 65위, 콜롬비아 67위, 페루 76위, 브라질 124위, 아르헨티나 126위
 - ** 국가경쟁력 중남미 주요국 순위: 멕시코 48위, 콜롬비아 57위, 페루 65위, 브라질 71위, 아르헨티나 83위
- 칠레의 FDI 유치 기본방향은 내·외국인 동등 대우, 투자원금 및 과실송금 인정(투자원금 송금은 투자 이행 1년 후부터 가능), 희소광물에 대한 투자 및 외국 정부의 직접투자 금지, 정부 간섭 최소화 등으로 요약됨. 2016년 흩어져 있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들을 '외국인투자법'으로 통일하였으며, 외국인투자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칠레 투자청(InvestChile)을 창설하였음.
- 칠레 투자청은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점점 확대(국제투자포럼, 세미나, 박람회, 기업 간 회의 추진), 투자 유치 조사 및 마케팅 지원(외국인 투자자 숙박 제공, 기업 방문 지원, 법률 상담 등), 사후관리(재투자 진행, 법률 및 절차 관련 불공정 해결, 산업 인프라 및 인력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정치안정

2021년 12월의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 보리치 후보 당선

- 2021년 12월 19일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좌파연합의 가브리엘 보리치 후보가 우파의 호세 카스트 후보를 10%p 이상의 득표율 차이로 꺾고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으며, 2022년 3월 대통령에 취임 하였음. 11월 21일에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카스트 후보와 보리치 후보가 각각 27.9%, 25.8%의 득표율을 획득하여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나 두 후보 모두 과반에 미치지 못하여 결선투표에 이르게 됨.
- 보리치 후보의 승리는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우파 성향의 프랑코 파리시 후보에게 향했던 표의 상당수가 결선투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온건 좌파 성향의 보리치 후보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 됨. 보리치 대통령은 야권 운동가 출신의 좌파 정치인으로, 복지정책 확대를 비롯하여 칠레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불평등 및 빈부격차 해소를 외치며 카스트 후보 대비 반대 진영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선투표에서 승리하였음. 한편, 1986년생인 보리치는 전 세계 최연소 대통령임.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 155석의 하원 총선에서는 우파연합이 53석, 보리치가 이끄는 좌파연합인 AD(Apruebo Dignidad)가 37석, 또 다른 좌파연합인 NPS(Nuevo Pacto Social)가 37석, 호세 카스트가 이끄는 또 다른 우파연합이 15석을 획득하였음. 따라서 보리치 대통령은 향후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서는 중도좌파인 NPS 등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신헌법 제정에 따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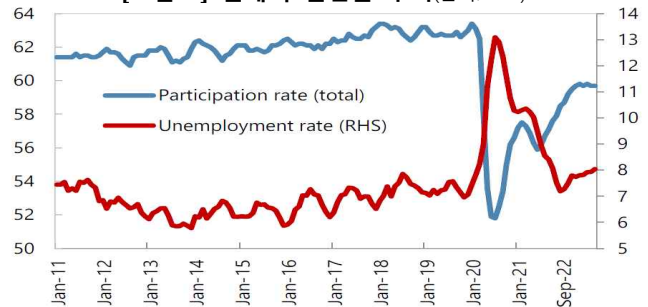
- 한편, 2021년 5월에는 시장, 시의원, 주지사 선거 및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원 선거 등 4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음. 선거 결과 보수 성향의 여당 연합은 제헌의원 155석 중 3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으며 진보 성향의 야당은 총 53석, 그 뒤를 이어 무소속 후보들이 48석을 차지하였음.
- 칠레 역사상 처음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의 직접적인 발단은 2019년 10월 발발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으나, 그 기저에는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피노체트 정권(1980~92년)에서 제정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교육·의료·복지 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었고, 대규모 시위 기간 중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이러한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여론이 신헌법 제정 요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됨.
- 제헌의회에서 제정되어 2022년 9월 4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개헌안은 유권자의 86%가 참여하여 찬성 38.1%, 반대 61.9%로 부결되었으나, 부결 직후 보리치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의회, 시민사회와 함께 새로운 일정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며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았음. 다만, 개헌을 동력으로 사회 전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보리치 대통령의 계획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평가됨.
- * 향후 일정(IMF) : (2022.12월) 상·하원, 향후 개헌 절차에 합의 → (2023.1월) 24명의 초안 작성 전문가 임명 → (4월) 50명으로 구성된 새 헌법위원회 구성 → (10월) 개헌안 의회 제출 → (11월) 국민투표
- 통과가 무산된 개헌안은 원주민 자결권 확대와 양성평등 의무화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폭넓게 담겨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조항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부 진보적 내용이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급격한 사회 변화를 사실상 강제하는 내용이 삽입되면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됨(Emerics, 이슈트렌드, '22.9.8자).

사회안정

실업률과 소득 불평등은 중남미 지역에서는 낮은 수준이나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

- 실업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년 간 6~7%대를 보여 왔으나 2020년에는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10.8%로 상승하였으며(IMF), 2021~22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어 각각 8.9%, 7.9%를 기록하였음. IMF는 중장기적으로 칠레의 실업률이 7%대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그림 7] 칠레의 실업률 추이(출처: IM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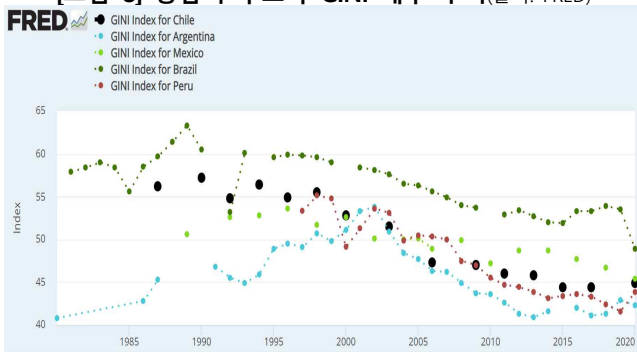


- 빈곤율의 경우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칠레의 빈곤율은 8.6%로 중남미 국가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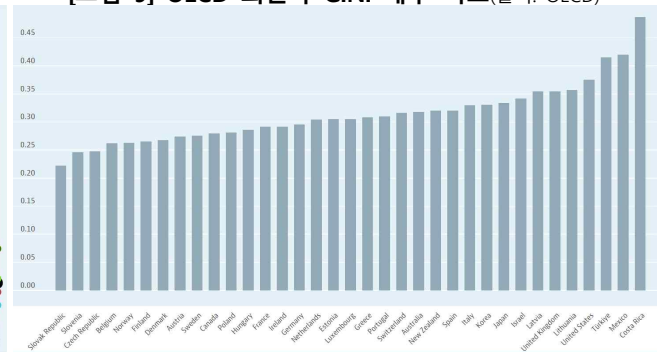
* 칠레 빈곤율 추이: ('09)25.3% → ('11)22.2% → ('13)14.4% → ('15)11.7% → ('17)8.6%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의 경우 칠레는 2020년 기준 0.449으로 중남미 주요국과 비교할 경우 브라질, 멕시코보다 낮고 페루, 아르헨티나보다 조금 뒤지는 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코스타리카(0.487), 멕시코(0.420)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World Bank).

[그림 8] 중남미 주요국 GINI 계수 추이(출처: FRED)



[그림 9] OECD 회원국 GINI 계수 비교(출처: OECD)



증가하는 마약 관련 강력 범죄와 정부의 억제 노력

- 2022년 5월 1일 수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노동자의 날 기념 대규모 행사에서 마약 갱단 간 총격전이 벌어져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한편, 작년 11월에는 산티아고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괴한들이 시민들을 향해 자동화무기를 난사하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칠레 경찰 등에 따르면, 2019~20년간 칠레의 살인 사건 발생률이 30% 가까이 증가했으며 총기 사용 범죄비율이 2019년 43%에서 2022년 60%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칠레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 국가들 중 강력범죄 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함. 2021년 기준 칠레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3.6명으로 베네수엘라(40.9명), 콜롬비아(26.8명), 브라질(18.5명)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임.

사회안정

-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총기를 사용한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한 원인으로 마약 조직의 활동 범위가 특정 국가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국제화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음. 이에 2022년 4월 브라질 정부는 마약 조직이 주축이 된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중남미 정부 간 공조 체계를 제안한 바 있음(Emerics, 이슈트렌드, '22.6.10자).
- 보리치 대통령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첫 대국민 TV 연설에서 총기를 이용한 강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기 소유를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음. 한편, 작년 12월에는 민간이 보유한 총기를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납하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이를 통해 확보한 1만 7천여 정의 총기류를 공개적으로 폐기하였음.

남부 마푸체 지역 원주민의 무력 시위 지속

- 2021년 11월 남부의 마푸체(Mapuche) 지역 원주민과 칠레 정부군 간의 무력 충돌로 원주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여러 원주민 집단 가운데 가장 큰 약 170만 명(칠레 인구의 약 9%)에 달하는 마푸체 원주민은 자신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장과 산림을 정부가 강제 수용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반환과 이들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며 정부 공권력에 대해 간헐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는 개도국 중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

- Moody's¹⁾는 ESG 요소가 칠레의 정부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고,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Moody's의 평가대상 개도국 총 106개국 중 2·3등급(1등급 전무) 해당 국가는 40개국임.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2.9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2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6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4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2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6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0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저지대 해안가 침수와 가뭄, 사막화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어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청정연료를 사용한 운송,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사회)** 칠레의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위생·보건·교육 등 분야 등 복지 확대, 합리적인 교통·주택 비용, 높은 연금 지급 등에 대한 요구는 때로는 폭력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배구조)** 신뢰성 있는 거시경제정책과 비교적 투명한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으로 칠레의 지배구조(Governance)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1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추진

- 칠레는 중남미에서 경제가 가장 개방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으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해 전 세계 GDP의 88%를 차지하는 65개 경제권을 포함하는 30여 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FTA 체결 국가: 한국, 미국, 중국, EFTA,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터키,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 칠레는 한국(2003년), 미국(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여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음. 칠레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내 첫 번째 FTA 체결국이며,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기준 칠레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자 제10위의 수입상대국임.
 - * 수출상대국 순위: 중국,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대만, 페루, 스페인, 네덜란드, 멕시코
 - 수입상대국 순위: 중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독일, 멕시코, 스페인, 일본, 페루, 한국
- 2021년 한국의 대 칠레 수출액은 15.1억 달러, 수입액은 68.1억 달러를 기록하며 53.0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한 바, 이는 배터리 생산의 필수적 소재인 탄산리튬 및 수산화리튬의 수입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적자 폭이 확대된 것임. 우리나라는 칠레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기계류 등을 수출하며, 칠레로부터 구리, 리튬, 목재제품, 포도주, 육류 등을 수입함.
- 칠레는 또한 중남미 내에서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의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통합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2012년)은 칠레,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중남미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재화, 서비스, 복지,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도모, 회원국 간 균형적인 경제성장 도모, 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정치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 등을 목표로 삼고 있음. 현재 싱가포르가 2022년 1월 준회원국(태평양동맹과 양자 FTA 체결을 의미)으로 가입하였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우리나라는 준회원국 가입 교섭을 진행 중이며, 에콰도르는 정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임.
- 한편, 칠레는 1998년부터 APEC 포럼에 정회원국으로 참여해 왔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참여하는 등 중남미 지역을 넘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11개국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칠레는 OECD 회원국이자 A~A- 수준의 우수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 1980년대 중남미 외채 위기 당시를 포함하여 파리클럽과 총 5번의 채무재조정(총 11.5억 달러)을 실시한 바 있으나, 2022년 2월 말 현재 채무재조정 잔액은 전액 상환한 상태임.
- 한편, 미 수은, 독일 Hermes, 영국 UKEF 등 주요 ECA들은 단기 및 중장기 자금 모두 원칙적으로 인수 가능하며, 영국 UKEF의 경우에는 중장기 자금을 대해 현지화 인수도 취급 가능하다는 입장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미평가 (고소득국)	미평가 (고소득국)
Moody's	A2 (2022.09)	A1 (2018.07)
Fitch	A- (2020.10)	A (2017.08)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OECD에 가입

- 칠레는 1994년 멕시코에 이어 2010년 중남미 국가로는 두 번째로, 남미 국가 중에는 처음으로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에 해당하여 별도의 OECD 등급은 없음.

* 이후 중남미 가입국: 콜롬비아(2018년), 코스타리카(2021년)

2019년 시위 사태 이후 국제신용평가3사는 칠레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Fitch(2020년 10월)는 2019년 대정부 시위로 거세진 정부지출 확대 요구와 팬데믹 대응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로 정부부채 규모가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칠레에 대한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2022년 9월)는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2019년 대정부 시위 등에 따른 정부지출 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 헌법 개정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한 등급 하향 조정하였음.

- 칠레는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수준을 유지해 왔으며 정부의 친시장 정책 기조, 중앙은행 등 경제부처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거시경제 운용 등에 힘입어 중남미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도를 유지해 왔음.
- 2022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연금 조기 인출 허용 등에 따른 경기과열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22년 8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14.1%)하고 2022년 3월 사회주의 성향의 새 정부가 집권하고 진보적인 가치를 담은 신헌법 제정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2.0%의 경제성장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광업 부문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로 인해 광물자원의 국제가격 변동 등에 의해 경상수지와 재정수입 규모가 좌우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채무부담이 낮은 편이고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및 해외 차입시장에 대한 높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외화 유동성 위험은 제한적임.
- 다양한 광물·농수산자원,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유리한 입지조건, 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개방 경제정책 등은 칠레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단, 소득 불평등에 따른 시위 등 소요 사태로 인한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하는 가운데 신헌법 제정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복지예산 확대 등 이전과는 차별화된 경제정책 방향성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